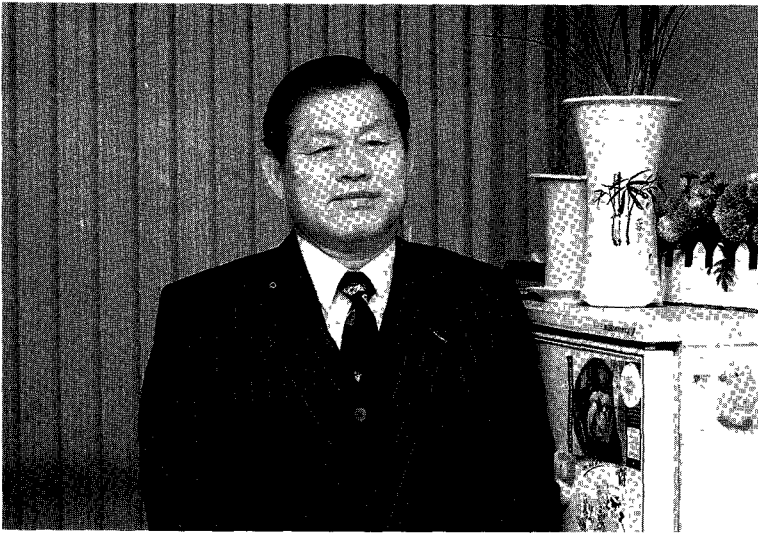


종계장 위생 식품안전 위해 필수적

□ 정리 / 이보균 과장



△ 김영환 소장

「본고는 지난 11월 18일 국내에서는 최초로 1등급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으로 인증을 받은 광천농장의 원종계 위생관리 현황을 알아 보고 종계장의 위생관리가 왜 중요한가를 조명해 보기 위해 1등급 위생방역 우수종계장으로 인증받기까지 원종계농장 관리를 진두지휘한 한국양계연구소 김영환소장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주 —

▲ 먼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광천농장이 1등급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으로 인증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광천농장의 현황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영환 : 광천농장은 하이라인 갈색산란계 원종농장으로 1986년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충남 홍성 광천읍 담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총 부지는 2만1천평이며 종계장, 부

화장, 계분처리장, 관리사를 합쳐 건축 면적은 3,237㎡(1,011평)가 됩니다. 사육되는 원종계는 6천수로 주간 4만2천수의 부화능력을 갖추어 1998년의 경우 매출액이 10억원을 넘는 수준이 되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 원종계 농장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종계장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종계장 위생관리에 대한 평소의 소신과 필요성을 이번 기회에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 김영환 : 저는 1962년에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대한사료, 천호부화장, 마니육종 사장을 거쳐 광천농장과 한국양계연구소, 한양부화장을 설립하기까지 오로지 닭과 함께 36년을 지내왔습니다.

늘 닭과 함께 하면서 더 알기 위해 연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품질이 우수한 실용계 병아리를 생산해 낼까 하는 것이 인생의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원종계로부터 종계, 실용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위생방역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실용계의 능력이 우수해 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투자가치가 비교적 낮은 원종농장을 경영하기에 이르러 오늘날 국내 최초로 1등급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으로 인증을 받는 단계에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영광이라기 보다는 한국 양계업 수준이 진일보하여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계한 프로그램에 따라 묵묵히 농장관리를 해온 황갑주 농장장 이하 모든 관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부터 종계인들은 종계장 위생관리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소득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계란이나 닭고기의

안전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위생방역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위생상태가 양호해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년 낮아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적은 양의 세균이 침입해도 질병을 일으키는 일이 잦아들 않습니까? 특히 살모넬라는 그 종류가 많은데 S.E, S.T, 파라티푸스가 대표적 살모넬라균이고, 만일 이 세균이 계란과 닭고기에서 검출이 된다면 소비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추백리나 가금티푸스는 식중독 원인균은 아니지만 살모넬라 혈청형이어서 생산성 향상 면에서 청정이 되어야 하며 식품 안전성 확보라는 개념에서도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 이번에 1등급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으로 인증받기까지 해오신 과정과 방법을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 종계장의 청정화를 이루는 것은 주위에 실용계 농장이 없는 청정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군 단위는 키우되 계군수는 줄여 2계군 이상이 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광천농장은 1계군만 유지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인데 주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6개월마다 하여야 하며 적어도 지하 100m 이상의 깊이에서 끌어올린 지하수를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계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빗

◇ 인터뷰 ◇

물에 흘러내려 가면 지표수가 오염되어 살모넬라를 박멸할 수가 없고 수질까지 오염을 시키므로 폐공은 밀폐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사주변에 나무나 풀, 웅덩이가 있으면 세균번식원이 되므로 가급적 제거하는 것이 좋고 살충제로 지속적으로 소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쥐가 왕래를 하면 농장내에 살모넬라균이 없어도 전파가 되므로 쥐가 안보이더라도 쥐약을 놓아 구서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살모넬라를 옮기는데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새나 쥐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무창계사가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가급적 계사에 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계분발효건조기도 교반식 보다는 밀폐형이 권장됩니다.

사료원료는 동물성 단백질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사료배합시 D사의 터민-8제제 같은 것을 분무하면 세균억제효과가 뛰어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환기도 크로스식 보다는 터널식으로 하여 계사간 혼입이 안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계는 강제환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식시 체내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절식시킨 닭에 살모넬라균을 투입하면 6시간이면 전신 장기로 확산된다는 보고가 있듯이 12~14일까지 절식을 시킬 때 세균확산을 한층 더 심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실용계도 강제환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천농장은 이같은 사항을 토대로 엄격히 우생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어렵고도 힘든 과정을 거쳐서 우수종계장 인증을 획득하셨는데 계속 청정한 원종계 농장으로 유지하시리라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수종계장에서 생산된 병아리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지요.

△ 김영환 : 채란농가 차원에서 병아리 품질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종계도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우량한 병아리를 선택하는 것은 사업성패를 좌우한다라고까지 할만큼 중요한데 난가가 불안하고 자금력이 부족하다보니 싼병아리를 선호하는 심리 때문에 품질 차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종계장은 박스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실용계 농가들이 병아리 선택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발전되어 나갔으면 합니다.

양계협회와 같은 공인된 단체에서 실험실을 갖추어 전국의 모든 병아리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불량 병아리가 유통되는 것을 막아 난계대 전염병을 차단하는 것도 한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품질 차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셔서 양축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MF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향후 채란업과 종계업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김영환 : 먼저 우리나라 채란업은 전망이

밝습니다. 연간 계란 소비량이 190개대인데 5~8년쯤 지나면 220~230개까지 증가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만 잘하면 280개 선으로 올라가는 것은 외국의 예로 봐서 잠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계란은 우수한 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에 기능성 계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도 라이소자임 생산으로 100~150만개가 매일 소비되는 공장이 유전공학적으로 면역성을 추가한 계란생산이 상품화 된다면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북한과 교역이 확대되어 나간다면 계란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양부화장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설립을 한 것은 향후 북한 시장에 대비하여 증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이라인 본사와도 앞으로 북한 시장이 개방되면 모든 판매권을 광천농장이 갖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일본 시장도 옆에 있어 생산비와 위생문제만 해결하면 더 없이 좋은 기회가 우리 채란업계 눈 앞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넘어야 할 난제도 많습니다. 안전성 확보만 하더라도 그렇고, 일본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백색란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산란종계업은 우선 식란수입이 어려운 만큼 국내 시장을 지켜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우수한 품질의 계란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실용계 생산을 위해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종계업은 실용계 시장과 비례해서 성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

습니다.

▲ 끝으로 앞으로 광천농장의 사업방향과 계획을 들었으면 합니다.

△ 김영환 : 앞서 말씀드린대로 광천농장은 하이라인 갈색산란계 원종농장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예정인데, 내년에는 원종계를 6천수에서 8천수로 늘릴 계획에 있으며 이중 1,500수는 백색계를 수입할 생각입니다. 백색계가 사료이용율 면이나 난질, 수출대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당장은 사업성이 떨어져도 정착을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광천농장은 2개월마다 채혈을 하여 백신항체를 체크하고 있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천흥제일사료 수의팀에 의뢰를 하여 김종택 수의사가 주도하여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받아 이번에 1등급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으로 인증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위 아웃소싱 방법으로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채란양계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생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종계관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실용계 농장에서도 합리적인 사양관리를 해나가야 할 시기를 맞이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광천농장의 위생방역관리 1등급인증을 계기로 제2, 제3의 인증 농장이 나와서 한국의 양계업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감사합니다. 양계